697名의醫師를動員

2年씩 無醫面에配置

8일하오 보건사회부는 의료법 제二십一조에 의해 전국에서 六백九십七명의 의사를 동원, 그중四백三십九명은 무의면에, 나머지二백五십八명은의사가부족한 각 공공기관및지방의료시설에 배치하였다

이번에 동원된 의사들은 오는19일부터 64년 5월18일까지만二년간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게되는데 이들은 지난4월 보사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의사등록에 신고한 만45세미만의 개업의를포함한의사들이다

서울出身시골로
二百餘名은公共機關에

당국에 신고된 의사수는 모두一천四십一명 그중 군전문의와 피교육자 「인턴」및 외국체류자등 三백四십四명을 제외한전원이 이번에 동원대상이 되었다

이번 의사동원에서 서울의 一백六십一명과 京畿도의 四십四명의 의사가 전국 각지로 배치되었을뿐 나머지 도의 의사들은 현재 그가 거주하는 도에 배치되어 도당국이 지정하는 무의면과 공공의료시설에 종사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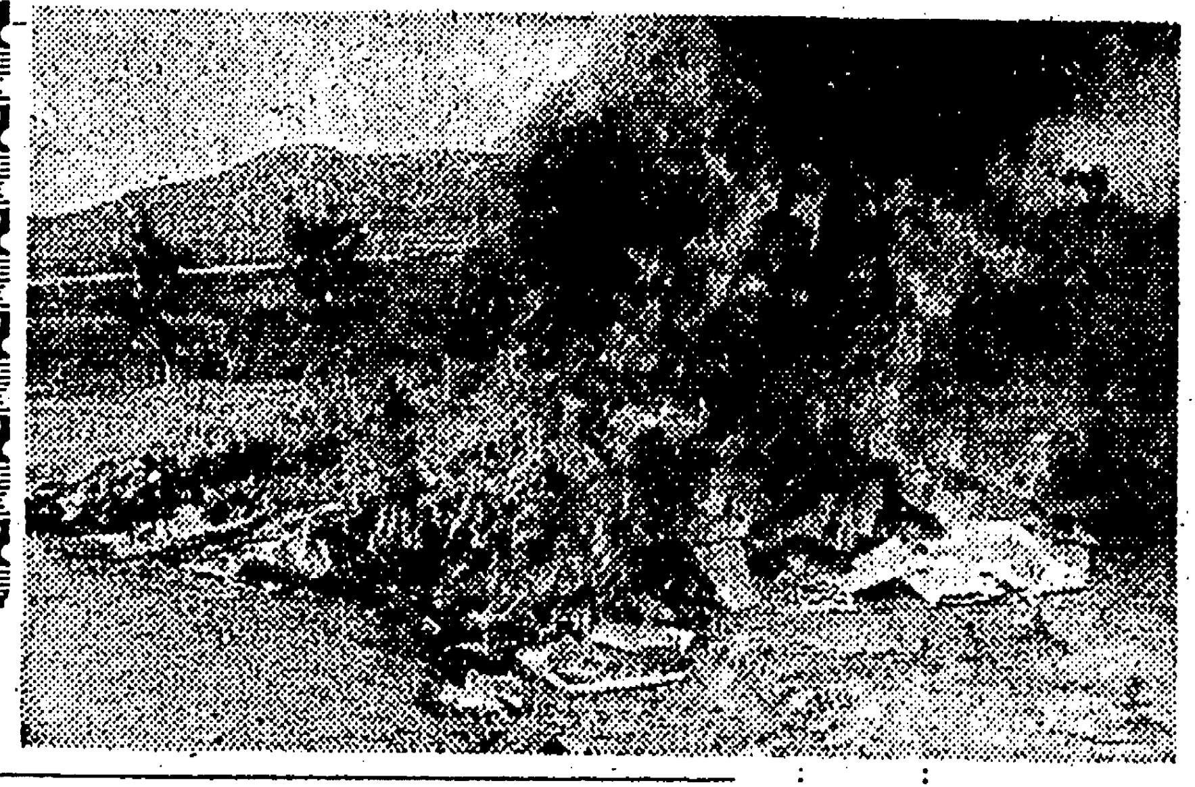
당국은 무의지역에 근무할 의사에대하여는 의료시설 개선비보조와 필요한 의료기구를 공급할것이며 의료법제二십一조 규정에의해 월약七만환의 보수를 받게된다

이로써 전국에 六백七개이던 무의면은 一백六십八개로 줄어들게되었다

보사부가 발표한 각도 의사배치인원은 다음과같다

◇무의면(四백三십九)

▲忠北=二십五
▲忠南=六십七
▲全北=四십五
▲全南=九십七
▲慶北=八십七
▲慶南=六십九
▲江原=四십一
▲濟州=八



金浦空港서 犯則物燒却

<金浦공항에서 불태워버린 범칙물자>

서울세관金浦공항출장소는8일하오3시五·一六혁명이후처음으로 동세관보세창고 안에보관중이던범칙물자중폐기처분(六○년12월31일이전)된외국잡지 「레코드」등싯가약二백만환어치를 공항청사앞뜰에서 관계관입회아래 소각처분했다

이날 소각처분된물품은 해외여행자들이 휴대품으로가지고왔다가 통관이보류—범칙창고에보관되어오던것중 폐기처분된것인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일본잡지및서적=五백五십一권
▲「레코드」(외음반)=一백六십三매
▲「카렌다」=三백六십三점
▲일본인형등십개품목

誘拐는아닌듯 없어진女中生 물건갖고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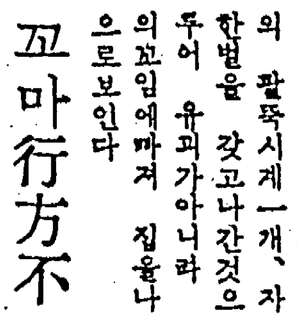
<집나간李양>

속보=지난4월27일집을나간 서울鍾路구鍾路六가 二三八의二七 韓昌姬(46)씨의장녀 李모(14=S여중一년)양은 8일현재 귀가치않고있는데 모친韓씨에의하면 李양은 지난27일 외박한다음날 돌아왔다가 어머니의 팔목시계一개, 자기옷 한벌을 갖고나간것으로미루어 유괴가아니라 누구의꼬임에빠져 집을나간것으로보인다

꼬마行方不明 집나간지한달째

【大邱發】지난4월8일하오4시쯤 이곳內唐동一○六에사는 鄭명술씨의아들「강우」(10=南山국민학교二년)군은 아무 이유없이 집을나간후 만一개월이지난 8일하오현재까지 귀가치않고있다

말못하는6歲꼬마 집앞서놀다가失踪



서울 苑西동 七○에사는李光鎬(38=東信「비니루」사장)씨의三남 正植(6=말을못한)군은지난四월24일정오쯤 집앞골목에서 놀다가 행방불명이되어 8일정오현재 돌아오지않고 있다<사진=실종한 正植군>

<智異山기슭에서> 첫 모 내 기

【南原發】8일智異山기슭에서는첫모내기가 시작되었다

이날南原군雲峰면北川리에사는尹正俊(32)씨는花水리에있는 열마지기의논에 첫모내기를끝냈다

이모내기는 雲峰농업협동조합의기술지도밑에 황산식못자리에 성공하여二모작을 목표로 모내기에 착수한것인데 예년보다열흘가량빠른것이다

宗團事務아직停滯 百年河淸…佛敎紛糾

대한불교曹溪宗은 비구·대처간의 오랜분규끝에 종단을 구성한지 한달이 넘도록 그체계를 확립하지못하고있다 이것은 종무원의 실무자급인 십二개국장인선을 둘러 싸고 비구·대처간에 선출비율문제가 아직 낙착을 못보고있으며 이로말미암아 한명의 국장도 선임치못하고있어 거의 모든사무가 정체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한다

이러한 사태에 당면한 문교부는 8일하오5시부터 불교재건비상종회를소집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못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老姑山서칼들고패싸움

캠핑갔던高校生·職工들
쫓고쫓긴1時間、11名拘束 …負傷數名

一○대의고교학생과 공장직공등 一六명이 각각 「캠핑」을가서 단도와삽·돌등으로 한시간동안이나 쫓고쫓기는 난투극을 벌린끝에 그중 一一명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8일하오 麻浦서에「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들학생측은 시내H고교一년 李모(18)K고고三년 李모(18)B고교二년李모(18)M고교二년 李모(19)군등四명, 공범五명은 지명수배중이며 구속된 직공측(학생과 무직자도포함)은 趙모(17)金모(17)薛모(18)金모(18)崔모(18)S공고一년 朴모(19)E학원一년 金모(18)군등 七명이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의범죄사실은 다음과같다

이들은모두 新村老姑山일대를 무대로한 불량배로서 지난5일낮1시쯤麻浦구新水동에있는 老姑山약수터에 놀이를 갔다가 사소한 시비끝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처음에직공측이 단도를 꺼내들고 덤비자 학생측은 제각기 돌을던져대항, 직공측이도망치자 학생측은 직공측의「캠핑」도구에서 삽을 꺼내들고 추격하였다

이때 소동을보고 동네에서 청년들이 산으로올라오자 학생측은 추격을 멈추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반대로 직공측이 반격을가해 산곡대기까지 추격하였다 이소동으로 직공측의 朴모(19)군이 삽에찔려중상 학생측의 李모(18)군도 집단구타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으며 쌍방각각수명씩 경상을입었다

경찰은 8일하오4시쯤범행용의자 崔모와 李모를 연행문초중인데 이날하오6시쯤에는 범행당시 사용했던 미제과도에 대한 지문감정결과가 서울국립과학연구소에서 현지수사당국에 통보되어왔으므로 동지문과 용의자들의 지문을 대조중이다

8日離就任式 一軍新舊司令官

8일상오11시 제一군사령부광장에서 신·구一군사령관의 이·취임식이 金육군참모총장「우튼」군사고문단장과 예하 군단장 사단장및 사령부장병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전임 朴林恒중장의 이임사에이어 신임군사령관閔機植중장은「상사의 지도와 각급지휘관의 인간적인 충고와 장병의 단결 및 협조를바란다」고 말하고 전임사령관이 계획추진해온 모든사업을 계속수행할것을 다짐하였다

둘죽고一名入院

말고기로 국끓여먹고 中毒

【大邱發】7일정오쯤 이곳新川동六一五에사는 鄭明淑(46=행상)씨는 지난5일낮 金모씨(41=주거미상)으로부터 말고기를 얻어 옆방에사는 趙一萬씨가족과함께 국을끓여먹고 중독, 전기鄭씨와 趙씨의二남(6)은 절명하고 趙씨의三녀 末仙(12)양은 인근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通禁全廢 論議할때아니다

中央情報部長言明

金鍾泌중앙정보부장은 8일통행금지폐지한후 치안상태가 좋다고말하였으나 통행금지전폐는논의할시기는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그이유로서 경찰의수가모자라고 직책수당등의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말하였다

담배密造團打盡 五千餘갑押收

전매청서울지방청감시위원반에서는 지난7일 서울마포구서교동 네곳에서 사제담배五천여갑과 담배제조기물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밀조자金相一(30=麻浦구西橋동一九八) 趙文燮(46=京畿도長湍읍계동六○) 尹聖鎬(28=天安군笠場면一二) 송기한(42=平澤읍三八五)등 四명을 검거하였다

현재 전매청은 금5월한달동안을 범칙물취체강조기간으로 정하고있다

暴力犯嚴斷키로 서울部長檢事會議서決議

서울지검은 8일 강력범 폭력범및 절도범등에 대한 처벌책등을 논의하기위해 부장검사회의를열었는데 이회의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대하여 보다더강경한 처리를 하기로 결의했다한다 이 구체적인내용은 밝혀진바없으나 검찰은 최근 일부지방에서 일어난 강력사건등에 비추어 강력책을 수립한것으로 보인다

두容疑者問招 一家族沒殺事件

【水原發】속보=華城군一가족몰살사건을 수사중인

잠자는同僚打殺 물건탐낸술집從業員

【汶山發】8일아침7시반쯤 坡州군臨津면馬井리四二七 전모씨경영 무허가음식점종업원 金發玄(16)은 한방에자고있던 같은종업원 朴珍洙(24=全北長水군天川면)씨를「사이다」병으로 난타 치사케했다

金은 그전날밤 朴씨의 팔목시계와 옷가지등을갖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었다는데 이날아침에도 범행후 朴씨의 팔목시계를 갖고달아나다가 인근泉리부락에서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自轉車탄채 돈찾아逃亡 심부름간靑年

7일낮12시반쯤 서울太平路二가二二에서 우동장사를하는 洪중규(48)씨는 이날 가게를 잠깐봐달라고 부탁했던「강」모군에게 현금二십三만七백六○환과 자전거一대를횡령당하였다

이날洪씨는 강군에게가게를보게하다가 C은행東大門지점발행 二십三만七백六○환짜리 보수한장을주며 돈을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강」군은 이돈을찾아 자전거를타고 도망쳐버렸다

困境의前職公務員 夫婦가自殺을企圖

8일밤 8시쯤 江原도金化군 西面瓦水리에 사는 林昌周(47·전직공무원)씨와 그의처 朴東順(21)씨는 박람회를구경하러 지난 5일에상경 그동안 서울역전 모여인숙에서 묵고있었는데 이날밤 집안의불화를 비관하던끝에 淸凉리뒷산에가서 함께음독한후 전차를타고 숙소에돌아오던중, 전찻간에서실신한것을 신고에접한경찰이 곧 적십자병원에입원시키고 가료중이다

남편林씨는 위독상태에 빠졌으나 부인朴씨는 생명에는 이상이없을것이라고하는데, 林씨에게는 전처소생인 六남매의자녀가 있다고한다

죽음의歲月 ㉟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金義煥등黨幹部學校에

中國人妻妾으로 轉落한越北女學生들

五三년4월남로당간부들에 대한 숙청선풍이 일어나자 당에서 쫓겨난 수백, 수천명의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은 平北鐵山, 平南新倉, 咸北阿吾地탄광등으로끌려가강제노동에 종사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화가 미친 것은 이들 남한출신 공산당원뿐이 아니었다. 비당원일지라도 남한출신이면 그화를 입어야 했고 그여파는 六·二五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의용군에 끌려가 월북한 남한 출신 여학생들에게 까지 미쳤다.

그때까지 군에있던 어린여학생들은 강제로제대당한후 방직공 전직공 재단공 식당및 국영상점 잡역겸 판매원으로 배치되어 노동자나 다름없게 혹사를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두달이못가 노동을감당할수 없는데다 굶주림에 견디다못하여 도망쳐나와 平壤시내를 헤매기 시작하였다. 平壤에만이러한 여학생들이 三, 四백명은 넘었다.

그중仁川출신 徐熙順(21)은 거리를헤매던끝에 형부인 尹璃媛이 납치되어 始族면에 와있다는 소식을듣고 시골길을더듬어 형부를찾아왔다.

尹璃媛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깜짝놀랐다. 여윈대로 여윈 피폐한 행색… 그러나 그 반가움이란 이를데 없었다.

徐熙順은 형부를 붙들고 목메어 울며 몇 모르고 의용군에 끌려갔던일, 후퇴, 군대내서의 생활과 강제로 제대를 당한후 노동하던 일등을 말하였다.

그리고 咸北金泉출신으로 서울 B고녀二년 재학중 의용군에 끌려가 平壤까지 흘러온金花子(19)는 노동판에서 방황하던끝에 중국음식점 점원으로들어갔다가 방랑하여 집주인인 중국인과 동거생활을 하고있다가 비관끝에 자살까지 했다고 말하였다. 비단 金花子뿐이 아니었다. 거의 전부가 방랑한 끝에 중국음식점 주인이나 그「보이」들과 동서생활을 하며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곧 이사실은 삽시간에 납치인사간에 퍼져 분격한 납치인사들은祖統에항의하는한편 시급한 사후대책을 세워줄것을 건의하였다.

정치보위부에서는 당황한나머지 극구변명하는동시에 平壤서중국인과동거하고있는 여학생들을조사하여 모두공장직공으로 보내졌다.

南勞黨에肅淸旋風

이와거의 때를 같이하여 5월말쯤 始族면에 슬픈 날이 다가왔다. 오랫동안 와병중이던 趙琬九의 병세가위독하여졌다. 그러면 어느날밤그는趙素昂, 嚴恒燮, 吳夏英등에둘러싸여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도 허무했다. 평생을 먼지처럼 밟혀왔고 끝내는 밟혀죽게 되었으니 말이다. 참으로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다.」

이렇게 띄엄띄엄 말을 이어가다 영 눈을 감고 말았다. 사실을말하자면 趙琬九는 괴뢰부수상인 洪命熹의 고모부였다. 그러나 원래 성격이 대쪽같은 趙琬九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용당하지는 않았다.

이소식이알려지자 洪命熹를필두로 洪增植, 金元鳳, 李克魯, 鄭然從등이 달려가 장위위원회를 조직 三일장을지내었다.

장사날에는 祖統산하 각처에서 수많은 조화가 보내졌고 조위금을 보내는등 형식적이나마 성대히 거행되었다. 당대표로는 崔元澤이 참가하고洪命熹, 趙素昂, 吳夏英이 목메인 소리로 슬픈 조문을 낭독하였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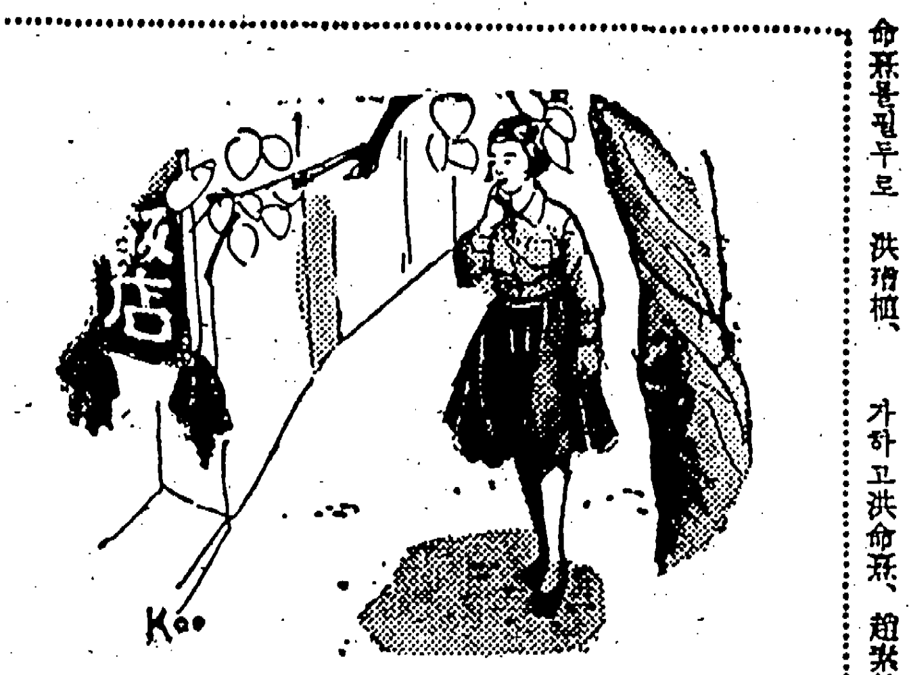
이윽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때까지 남로당숙청관계로 구속되었던 자유도 완화되었고 자진월북자와 납치인사들에 대한 포섭공작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그첫단계로 10월 金錫煥 金憲植외 수명이 二년제 괴뢰당간부학교에 입학하여 平壤시내 寺동 기숙사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음해인五四년에는嚴恒燮 金孝錫 金七星등이 추천을 받고 金若水 姜旭中과함께 같은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딴 괴뢰간부들과 같이 대우를 받아가며 공부하였다.

수업중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늘 一위를차지하는 것은 嚴恒燮이었다. 그래서 그는 교수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고 金七星은 항상 뒤떨어져 충고를 받곤 하였다.

이때의 「크라스」반장은 金若水였다. <內外問題硏究所提供>



<그림…具仁會>

「글렌」中領母親에 「世界의어머니」賞

【뉴욕8日AP同和】美國의 어머니위원회는 8일「오하이오」주「뉴·콘코드」에사는 美國우주인「존·H·글렌」二세의 어머니에게 『세계의어머니』라는특별상을 수여하였다

學用品三萬餘箱子 美國青少年들膳物

8일하오 대한적십자사에서 전하는바에 의하면 미국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단원들은 한국의 청소년적십자단원들에게 8일의 적십자의날선물로 학용품三만五천상자를 보내왔다고한다

學校財産登記 文敎部서종용 6月末까지

문교부는 8일하오 서울특별시장과 각도지사와 각대학에 대하여 아직재산등기를 마치지않은 학교법인의 등기를 오는6월말일까지 완료하도록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일부학교 법인이그소유재산을 등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고있는 분규를 종식시키기위한것이며 만일 기일내에 등기를 하지않은 재단에 대해서는 응분의조처를 할것이라고 문교부당국자는 말하였다

博覽會구경가다 世宗路서날치기 시골女人逢變

8일낮11시40분에서 12시사이에 忠南大田시정동二에사는 李재영(33=女)씨는 산업박람회를 구경하러간다고 世宗路부근을 지나다가「핸드·백」속에넣어둔 현금九만八천환을 소매치기당하였다

時計舖에도둑 高級만60餘個盜難

【浦項發】7일새벽1시부터 4시사이에 시내시흥동에있는 시흥백화점(주인=金永泰=36)에 도둑이들어 고급시계五십여개등비롯하여 부속품등 싯가약二백만환어치를 절취해갔다

便所에서목매어 「카추샤」兵變死

8일아침 미제七보병사단 제십三공병대대 소속 차용만一등병은 부대안변소에서 천막줄로 목매어 죽은것을 발견하였는데시체옆에서발견된 쪽지로보아 자살로보이나 미七사단 헌병대에서는 계속사인을 조사중이다

「씨멘트」로된 韓式家屋건축

【仁川發】완자문을 제외하고는 순전히「콩크리트」만으로세워진 한식가옥이 등장했다

이곳 新興동二가二六에사는 姜德熙(40=德昌企業사장)씨는 약二십년전부터 기와공장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에 건축용목재가 부족한데 착안,「씨멘트」만의 건축을 연구해오다가 최근 전기주거지에 거의「콩크리트」만으로 五간반짜리 한식가옥을건축하는데성공했다

本社見學 (8日)

◇慶北金陵郡 開寧中學校三年生五十名 引率者 李相稷先生
◇全北金堤郡 金堤女子中學三年一三○名 引率 金皮完先生外三名

신경통 견비통에 신신파스
응혈풀고 결린데 신신파스
담들고 아픈데 신신파스
운동후 근육피로에 신신파스
日製사롱파스보다 손색이 없읍니다
類似品이 많사오니 반드시 신신字号를 택하십시요
新信 반창고本舖

회충·요충의 보다 경제적인 구충 방법은…
새로나온 가정용 15정, 단체용 150정 포장으로!
"디게시나"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매된 후로는 약효의 정확성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보게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번 폐사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신포장 가정용(15정), 단체용(150정)을 새로 발매하므로써 여러분의 평소의 요망에 한층 더 보답하게 되었읍니다.
가정용은 어른이면 5인분, 단체용은 어린이 50인분, 학교 어린이면 75인분에 해당하므로 가정, 직장, 또는 학교에서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강력구충제
디게시나
제·조발매원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전화 ⑤ 3456, 3459, 8474, 9171

血液細菌檢查
皮膚泌尿器科
專門
鄭準台病院
新築施設完備開業
中区南山洞二가一
退溪路南山國民校옆
電②七二三二－三

最高級品!!
大東毛紡의자랑
낙타毛糸
낙타毛糸의특징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순모 中細糸 순모 공작사
◇색이 변치 않고 선명하며 방충가공(防虫加工)으로 좀 먹지 않는 최고급 모사
등록상표 낙타모사
防虫加工 EULAN BAYER GERMANY
대동모방공업주식회사